

전쟁 쇼크에 빛내서 산 주식 '위기'... 개인 강제청산 공포

신용거래용자 34조 '역대 최고' 위탁매매 미수금 강제청산 급등 마통 잔액, 사흘만에 1.3조 늘어

회사원 박모(48) 씨는 올해 초부터 A사 주식을 사들였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더 늦기 전에 사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주가 상승을 확신하고 현금 4000만원에 신용용자 2000만원으로 주식을 샀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시장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신용용자 이자를 내며 버티던 그는 결국 이달 초 강제 청산(반대매매)을 당했다. 박씨의 최종 수익률은 -57%였다.

이러나 '빚투'(빚내서 투자)와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다시 급락하자 빚을 내 산 주식들이 강제 처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ChatGPT로 생성한 '급락하는 국내 증시에 괴로워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이란 전쟁이 증시에 처음 영향을 줬던 지난 3일부터 변

동성 장세가 지속됐던 사흘간 이 잔고는 매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용자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갚지 못하면 주식은 강제로 청산되는데, 특히 급락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로 이어진다. 위탁매매 미수금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초단기 빚투로 분류되는 이 미수금은 지난 5일 2조1487억원으로, 전쟁 발발 이전보다 배가 급증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된다. 실제 전쟁 여파로 증시가 지난 3~4일 폭락했던 바로 다음날인 5일 강제로 처분된 주식은 77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대로, 지난 달 27일 76억원의 약 10배에 달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강제청산 비율도 6.5%로 급등했다. 하루 전인 지난 4일 2.1%의 3배를 웃돌았고, 지난 3일(0.9%)의 7배에 달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이후 급락장에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강제 처분된 것으로 풀이

된다. 여기에 은행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227억원으로, 2022년 말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마통 잔액은 지난 3~5일 사흘 만에 무려 1조3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상당 부분이 증시로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용거래와 위탁매매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빚투는 하락장에서 지수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는 트리거(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수거래의 경우 이틀 안에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전날 증가보다 최대 30% 낮은 금액으로 강제 처분되기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감원, 투자사기 기승에 소비자경보 발령

증시 변동성 커지며 가짜뉴스 늘어 높은 수익 보장, 유사수신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은 9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호재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동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업체는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 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동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사업인 것처럼 가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성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 제보건수는 295건으로 전년(410건)보다 감소했다. 당국은 이중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로 신기술·신사업,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 등을 가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중동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긴급 회의를 열어 레버리지 투자자 손실 확대와 금융사 건전성 악화 등 관련 리스크들을 점검했다. /허정윤 기자

정은보 "한국물 파생상품 24시간 거래"

(거래소 이사장)

미국 글로벌 로드쇼 위해 출국 "파생상품시장 유동성 제고 기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이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 거래시간 전면 확대를 위한 계약 체결과 한국 증시 글로벌 로드쇼 개최를 위해 출국했다. 한국거래소는 정 이사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보카라톤에서 독일 파생상품 거래소 유렉스(Eurex)와 미국 ICE퓨처스US(ICE Futures US)와 각각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 거래시간 확대를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국제파생상품협회(FIA)가 주최하는 'FIA 국제파생상품 컨퍼런스' 현장에서 개최된다. 거래소는 이번 계약 체결로 투자자들이 한국물 파생상품을 거래시간 제약 없이, 유럽

과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시간 전면 확대 대상 상품은 ▲Eurex에 상장된 MSCI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 US에 상장된 FTSE South Korea 지수선물 등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계약 체결로 미주(ICE) 및 유럽(Eurex) 거래소를 통해서도 한국물 지수선물의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KRX코스피200선물을 포함한 글로벌 한국물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각 거래소 대표들도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 접근성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한은-기상청 금융권 기후리스크 점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상청과 협력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상기후와 탄소 감축 정책 강화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금융 시스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9일 기상청과 협력해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물리적 리스크)과 탄소 감축 정책 강화에 따른 전환 비용(전환 리스크)이 기업 수익성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금감원, 내부 제보자 보상제도 도입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상장주식 자기매매 신고를 의무화하고 내부고발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모펀드 업계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PEF운용사협의회와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만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준법감시 담당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준은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통제 조직 구축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 ▲자율 점검 체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부통제 조직 측면에서는 대표이사를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준법감시 담당자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준법감시 담당자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이나 의결권 행사 등 핵심 운용 업무에서는 배제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도 의무화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준수 기준도 구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스 월)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이 업무 단계별로 이해 상충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품 수수나 부당한 향응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허정윤 기자

황성업 회장, 글로벌 자본시장 협력 확대

(금투협) 국제증권협회협의회 총회 참석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국제자본시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K-자본시장 홍보와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선다. 금융투자협회는 황성업 회장이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델리에서 열리는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International Council of Securities Associations)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SA는 주요국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자본시장 협의체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회원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국제 기구다. 미국 등 18개국 2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는 회원총회와 오픈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회원총회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과 회원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각국 자본시장 정책 동향과 시장 구조 변화 등을 공유하는 세션도 마련돼 글로벌 자본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픈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상품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 채권시장 유동성 확대, 시장 인프라 혁신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